

형제회 생활에서의 온유함

Fr. Jerome Wolbert, OFM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 중 내가 좋아하는 하나는 리보토르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한 형제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엄격하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먹는 만큼만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에게는 이 식사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픔으로 잠결에 울부짖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사람을 깨워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FA:ED 3, page 278). 형제회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형제회라고 하는 fraternity 라는 단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저의 관구 수사 한 명은 처음에 이것을 대학교 사교클럽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프란치스코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도록 불림 받은 형제회에 대해 좀 더 나은 직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친 형제자매들과 같을 것이라는 기대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맙게도, 우리가 가진 프란치스코회의 전통에는 복음적인 형제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들이 있어서, 형제회 생활을 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깨우쳐줍니다. 리보토르토의 경험은 우리 형제회 생활에서의 온유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19-25)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잘못을 저지른 형제에게 부끄러움과 꾸짖음보다는 자비를 보여주라고 형제들에게 강조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 형제가 원수의 선동으로 중한 죄를 지었을 때, 그 형제가 자신의 수호자에게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모든 형제들은 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그에게 큰 자비를 베풀고 형제의 죄를 아주 은밀히 지키주십시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봉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프란치스코 성인은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비를 베풀도록 주의 깊게 지시하였습니다. 책임자가 자신의 거친 감정과, 자신의 공격적인 느낌을 자제할 수 없을 때, 그는 결코 온유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 폭풍은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짓지 않은 모두에게 휘몰아칩니다. 겸손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들에게 엄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수도원에 계시는 대부분의 수사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허물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양하며, 격려하는 삶으로 서로에게 친절한 도움과 커다란 빛을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과 손님을 환영할 때에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Holy Dormition Byzantine Franciscan Friary,
Sybertsville, PA (Guardian Fr. Jerome
Wolbert, OFM)경당의 아이콘 화면